

홈 > 뉴스 > 기획 > 신탐라순력도

농촌체험마을로 우뚝...'무릉도원'을 꿈꾸다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2리

데스크승인 2014.02.09 김문기 기자 | kafka71@jejunews.com



무릉도원을 꿈꾸는 마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2리.

제주의 전형적인 농촌마을 무릉2리는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서쪽 중산간 지역 경계에 자리해 있다.

행정구역상 인향동, 좌기동, 평지동 등 3개의 동이 한 마을을 이루고 있는데 인향동은 한경면과 한림읍, 좌기동은 대정고을, 평지동은 한경면과 모슬포 지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모여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마을에는 '정개발', '구남물', '왕가동산', '검은굴왓' 등 나지막한 동산들이 포근히 마을을 감싸고 있고, '구남물', '구시흘못' 등 연못들이 있다.

중산간에 위치하면서도 비교적 경사가 완만하고 해발고도가 낮아 평탄한 지대를 이루며 토질은 비화산 회토인 점질토에 속하여 농경시대에는 흙을 이용해 도자기를 생산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포도, 감귤, 마늘 생산지로 각광받고 있다.

무릉2리는 1994년 폐교된 무릉동초등학교 터에 1999년 11월 제주자연생태문화체험골이 들어서며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생활하다 고향을 위해 일해보겠다고 귀향한 강영식 촌장이 폐교를 자연생태 및 문화체험 공간으로 만든 이후 잊혀져가는 농촌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마을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무릉2리가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5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이후부터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구심점 역할은 폐교에 들어선 '자연생태문화체험골'이 담당해 왔다.

본격적으로 마을회가 중심이 된 마을만들기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07년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되면서이다.

무릉2리는 '범죄없는 마을'의 인센티브를 가지고 농가 주택마다 대문을 없애고 정남을 만들어 설치했다.

이후 무릉2리는 자립형 마을(2007), 정보화 마을(2009), 자연생태 우수마을(2009), 푸른농촌 희망찾기 우수마을(201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마을(2011~2016), 소도읍 가꾸기사업 마을(2011), 발기반정비사업 마을(2012) 등으로 지정됐다.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인 '무릉도원올레권역' 사업을 통해서는 복숭아길 조성(2011), 제주어교실 신축

(2013), 무릉외갓집전시관 신축(2013)이 이뤄졌다.

2009년 마을 브랜드로 탄생한 '무릉외갓집'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도시 회원들에게 판매하는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다.

2013년 영농조합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 '무릉외갓집'은 주민 26명이 출자 회원으로 참여해 한라봉, 마늘, 양파, 브로콜리, 보리쌀, 감자, 좁쌀, 콜라비, 된장, 간장, 고사리 등을 판매하고 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분은 마을에 환원되고 있다.

2009년 첫 출발 당시 연회원(소비자) 45명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560명으로 늘었다.

마을창고를 작업장으로 사용해 오다 지난해 12월 홍보관과 카페를 오픈,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생산 및 판매 기반을 갖췄다.

누룩만들기, 신다리만들기, 감귤모찌 체험, 제주어 체험, 집줄농기 등 제주의 전통문화 체험을 즐기기 위해 마을을 찾는 손님들이 늘면서 마을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자립형 마을로 서로 믿고 살아가는 제주의 삼무(三無)정신을 잇는 마을.

무릉2리의 변신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무릉2리 체험 프로그램>

▲생태문화체험=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자연생태문화체험골'에서는 제주문화유산 해설사인 강영식 촌장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곳자왈탐사, 식물탐사, 고망뉘시, 패류탐사, 민

물고기탐사, 숲체험 등이 진행된다.

▲선사문화체험=선사인들의 삶의 체험을 통해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공동체 삶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전복껍데기로 칼을 만들고 돌과 나무를 이용해 농기구를 만들어보며 제주 흙으로 선사시대 토기를 빚고 띠를 이용해 움집을 짓는 체험 등이 진행된다.

▲전통문화체험=조상들이 생활하던 친환경적인 방식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어르신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초가집줄농기, 새끼꼬기, 돌담쌓기, 멧돌 곡식갈기, 도리깨 타작, 소달구지 타기, 연자방아, 곡식빻기 등이 진행된다.

▲농촌문화체험=고구마 캐기, 감굴따기, 마늘심기, 도리깨 타작 등의 체험활동을 통해 농촌의 가치와 우리 농산물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지역에서 생산된 콩을 이용한 전통된장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